



# "산업재해 예방 노력"...의왕·수원시, '노동안전의 날' 합동 점검

김기현 기자

2026.04.16 오전 10:33

"노동안전지킴이 통한 지속 점검·개선 조치 요구"



경기 의왕시가 15일 '노동안전의 날'을 맞아 수원시와 합동으로 고천 가·나 구역과 고천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. (의왕시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) 2026.4.16/뉴스1

(의왕=뉴스1) 김기현 기자 = 경기 의왕시는 15일 '노동안전의 날'을 맞아 수원시와 합동으로 고천 가·나 구역과 고천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.

당일 의왕·수원시 관계자, 노동안전지킴이 등 총 17명은 △떨어짐 △끼임 △부딪힘 등 3대 사고 위험 여부를 살폈다.

또 방호 조치 상태와 건축자재 정리정돈,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.

노동안전지킴이는 제조업 및 건설현장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,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인력으로, 지난달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.

이들은 현재까지 지역 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총 85차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개선 요청 149건 가운데 126건이 조치가 완료돼 84.6%에 달하는 개선율을 기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.

김성제 시장은 "노동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조치를 이어가겠다"며 "미비한 사업장은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kkh@news1.kr

☞ <https://www.news1.kr/local/gyeonggi/6138493>